

고전시가 필수 어휘 100선

1. 고슬 - 가을
ex) 어느 고슬 이른 봄
- 월명사, '제망매가'
2. 나리(물) - 시내(물)
ex) 새파른 나리여하 / 기랑이 즈시 이슈라.
- 충담사, '찬기파랑가'
3. 소반(小盤) - 밥상
ex) 네 다리 소반위에 멀건 죽 한 그릇
- 김삿갓, '무제(無題)'
4. 바른 - 바다
ex) 살어리 살어리랐다 바른래 살어리랐다
- 고려가요, '청산별곡'
5. 정지 - 부엌
ex) 가다가 가다가 드로라 예정지 가다가 드로라
- 고려가요, '청산별곡'
6. 님비/곰비 - 앞 / 뒤
ex) 덕(德)으란 곰비에 받잖고 / 복(福)으란 림비에 받잖고
- 고려가요, '동동'
7. 즈슬 - 모습을
ex) 누미 브를 즈슬 디녀 나샀다.
- 고려가요, '동동'
8. 즈믄 - 천(1000) / 온 - 백(100)
ex) 즈믄 힐 장존^후살 약이라 받잖노이다.
- 고려가요, '동동'
9. 별혜 - 벼랑에
ex) 유월 보로매 아으 별혜 부룬 빗 다호라
- 고려가요, '동동'
10. 곶(곶) - 꽃
ex) 대동강 아줄가 대동강 건너편 고зыва
- 고려가요, '서경별곡'
11. 백구 - 흰 갈매기
ex) 백구야 헌사^후랴 못 미들손 도화 | 로다.
- 송순의 시조
12. 이화 - 배꽃 (흰색, 봄)
ex) 이화우 훗뿌릴 제 울며 잡고 이별흔 님
- 계랑의 시조
13. 도화 - 복숭아꽃 (붉은색)
ex) 백구야 헌사^후랴 못 미들손 도화 | 로다.
- 송순의 시조
14. 행화 - 살구꽃(분홍빛)
ex) 도화행화는 석양리예 피여잇고
- 정극인, '상춘곡'
15. 해오라비 - 해오라기, 하얀 백로
ex) 검은 까마귀 해오라비 되도록에
- 김구의 시조
16. 뵈 - 산 / 수라(궁중용어)
ex) 뫼흔 길고 길고 물은 멀고 멀고
- 윤선도, '견회요'
17. 하암(향암) - 시골에 살아 세상이치를 모르는 어리석은 이
ex) 어리고 하암의 뜻의는 내 분인가 ^후노라
- 윤선도, '만흥'
18. 소(沼) / 지당(池塘) - 연못
ex) 말가훈 기픈 소희 온같 고기 뛰노느다
- 윤선도, '어부사시사'
19. 청약립 / 녹사의- 갓/우비(소박한 옷차림)
ex) 청약립도 써 잇노라, 녹사의 가져오라.
- 윤선도, '어부사시사'
21. 시비 - 사립문
ex) 시비를 여지 마라, 날 ㅊ즈리 뉘 이시리
- 신흠의 시조
22. 실솔 - 귀뚜라미
ex) 님 글인 상사몽이 실솔이 넉시되야
- 박효관의 시조
23. 즌듸 - 진 곳 (위험한 곳)
ex) 즌듸 무른 디 굽히지 말고
- 조선후기의 사설시조
24. 사창/옥창/규방 - 여인의 방
ex) 제 혼자 우러 네어 사창 여원 좀을 솔쓰리도
- 조선후기의 사설시조
25. 해동/계림/동이/동방 - 우리나라
ex) 해동 육룡이 누르샤 일마다 천복이시니
- 용비어천가 (1장)
26. 여름 - 열매
ex) 부른매 아니 뭇씨 곶 빙코 여름하나니
- 용비어천가 (2장)
27. 벽계수 - 푸른 시냇물
ex) 청산리 벽계수야 수이 감을 자랑마라
- 황진이의 시조

| | | |
|---|--------------|---|
| 28. 녀름 - 여름 ex) 긴 녀름 강춘애 일마다 유심한도다 | - 두보, '강춘' | 41. 늘애(늘이) - 날개 ex) 향 끄민 늘애 로 님의 오시 올으리라 - 정철, '사미인곡' |
| 29. 그름(가름) - 강 ex) 그름미 푸른니 새 더욱 희오 | - 두보, '절구' | 42. 이리 - 아양 ex) 이리야 교티야 어즈레이 흐듯썬디 - 정철, '속미인곡' |
| 30. 싸 - 땅 ex) 하늘과 싸 는 일야에 뻣도다 | - 두보, '등악양루' | 43. 삼춘(봄), 삼하(여름), 삼추(가을), 삼동(겨울) ex) 삼춘화류 호실절에 경물이 시름 업다 - 하난설현, '규원가' |
| 31. 관산 - 국경, 관문, 요새 ex) 사호맷 무리 관산 북녀괴 잇느니 | - 두보, '등악양루' | 44. 시앗 - 첨 ex) 요약한 아우 동서 여우 같은 시앗년 에 - 용부가 |
| 32. 굿(굿) - 끝 ex) 굿 업슨 디는 나뭇니꾼 / 蕭蕭(소소)히 누리고, | - 두보, '등고' | 45. 침선 - 바느질 ex) 침선 돋는 유를 각각 명호를 정하여 벗을 삼을 새 - 규중칠우쟁론기 |
| 33. 촉(燭) - 촛불 ex) 촉 잡고 갓가이 사랑할 제 암향 촛초 부동터라 | - 안민영의 시조 | 46. 수풀 - 숨씨, 실력, 능력 ex) 수풀 제도를 나 곧 아니면 어찌 일으리오 - 규중칠우쟁론기 |
| 34. 녹양(綠楊)/양류 - 버드나무 ex) 녹양 방초는 세우(細雨)중에 프르도다 | - 정극인, '상춘곡' | 47. 잣 - 성(城) ex) 잣 앉 보미 풀와 나뭇분 기펫도다 - 두보, '춘망' |
| 35. 연하 - 안개와 노을 / 금수 - 수놓은 비단 ex) 연하 일휘는 금수 를 재벗는 듯 | - 정극인, '상춘곡' | 48. 무술(무울) - 마을 ex) 물근 무울 흔 고비 무술 을 아나 흐르느니 - 두보, '강촌' |
| 36. 혜음(험, 험가림) - 근심, 걱정, 시름 ex) 단표누항에 흐튼 혜음 아니 흐니 | - 정극인, '상춘곡' | 49. 파람 - 휘파람 ex) 청풍의 옷깃 열고 긴 파람 흘리 불 제 - 위백규의 시조 |
| 37. 남여 - 가마 ex) 남여 를 비야 톡고 솔 아래 구본 길로 | - 정극인, '상춘곡' | 50. 우음 - 웃음 ex) 하하 허허 훈 들 내 우음 이 정 우음 가 - 신흠의 시조 |
| 38. 황운(黃雲)-누렇게 익은 곡식 ex) 황운 은 쏘 엊지 만경에 편 거고요 | - 송순, '면양정가' | 51. 홍진(紅塵), 풍진, 진세, 인간, 인세, 사바, 하계, 차안 - 세속적 세계, 인간세계 ex) 홍진 에 뭇친 분네 이내 생애 엊더훈고 - 정극인, '상춘곡' |
| 39. 건곤 - 하늘과 땅(온 세상) ex) 건곤 이 폐색하야 백설이 훈 비친제 | - 정철, '사미인곡' | 52. 선흐다 - 서운하다 ex) 잡소와 두어리마느는 선흐면 아니올세라 - 고려가요, '가시리' |
| 40. 모첨 - 초가(의 처마) ex) 모첨 비친 히를 옥누의 올리고져 | - 정철, '사미인곡' | 53. 녀다(니다, 네다) - 가다, 지내다, 살아가다 ex) 니를 훈디 녀가져 원을 비습노이다. - 고려가요, '동동' |

54. 열다 - 사랑하다(육체적으로)

ex) 어론 님 오신 밤이어든 구부구부 펴리라

- 황진이의 시조

55. 괴다 - 사랑하다(정신적으로)

ex) 내 얼굴 이 거동이 님 괴암즉 훈가마는

- 정철, '속미인곡'

56. 벼기다 - 우기다, 모함하다

ex) 벼기더시니 뉘러시니잇가 뉘러시니잇가

- 고려가요, '만전춘'

57. 방송하다 - 내보내다, 석방하다

ex) "서대주의 착한 마음을 본받아라"하고 인하여 방송하니

- '서동지전'

58. 늦기다(느끼다) - 흐느끼다

ex) 하 어척 업서서 늦기다가 그리 되게

- 신흠의 시조

59. 이솟하다 - 비솟하다

ex) 산 접동새 난 이솟흐요이다

- 정서, '정과정'

60. 혀다 - (악기, 불)을 켜다

ex) 이월 보로매 아으 노피 현 등소불 다흐라

- 고려가요, '동동'

61. 어엿브다 - 불쌍하다

ex) 어엿뿐 그림자 날 조출 쁘이로다

- 정철, '속미인곡'

62. 식어디여 - 사라져서, 죽어 없어져

ex) 출하리 식어디여 범나빅 되오리라

- 정철, '사미인곡'

63. 삼기다 - 생기다, 태어나다, 만들어지다

ex) 이 몸 삼기실 제 님을 조차 삼기시니

- 정철, '사미인곡'

64. 씩우다 - 꺼리다

ex) 공명도 날 씩우고, 부귀도 날 씩우니

- 정극인, '상춘곡'

65. 물다 / 견화이다 / 마련하다 - 마름질하다 / 재단하다

ex) 칼로 물아 낸가, 붓으로 그려낸가

- 정극인, '상춘곡'

66. 여희다(여희다) - 이별하다, 헤어지다

ex) 여희여슈를 슬후니 새 무수을 놀래누다

- 두보, '춘망'

67. 둘다(도타) - 좋다

ex) 불휘 기픈 남근 브른매 아니 월씨 / 곶 도코 (후략)

- 용비어천가 (2장)

68. 좋다(조타) - 깨끗하다

ex) 언의 뉘 이 조흔 뜻을 알리 있다 흐리오

- 김수장의 시조

69. 헌사하다 - 야단스럽다

ex) 어와 조화옹이 헌사토 헌사흘샤

- 정철, '관동별곡'

70. 어리다 - 어리석다

ex) 이 마음 어리기도 님 위한 탓이로세

- 윤선도, '견회요'

71. 슬허하다 - 슬퍼하다

ex) 스름이 져 시만 못흐를 못늬 슬허흐노라

- 박효관의 시조

72. 외다 - 그르다, 잘못되다

ex) 슬프거나 즐거우나 옳다 하나 외다 하나

- 윤선도, '견회요'

73. 하다 - 많다(多), 크다(大)

ex) 노래삼긴 스람 시름도 하도할샤

- 신흠의 시조

cf) ھ다 - 하다(爲)

74. 절다 - 짧다

ex) 긴 소리 자쁜 소리 절절이 슬픈 소리

- 사설시조

75. 수이 - 쉽게

ex) 청산리 벽계수야 수이 감을 자랑마라

- 황진이의 시조

76. 굿다 - 끊어지다

ex) 노픈 듯 누즌 듯 그순 듯 낫는 듯

- 송순, '면양정가'

77. 낫다 - 이어지다

ex) 노픈 듯 누周恩 듯 그순 듯 낫는 듯

- 송순, '면양정가'

78. 오면된 - 방정맞은

ex) 오면된 계성의 즘은 엇디 씨듯던고

- 정철, '속미인곡'

79. 고두 - 머리를 조아리다.

ex) 성진이 고두하고 울며 가로되

- 김만중, '구운몽'

| | |
|--|---|
| <p>80. 오마 흐다(오다흐다) - 온라고 하다 ex) 님이 <u>오마</u> 흐거늘 저녁밥을 일찍 지어 먹고 - 조선후기 시조.</p> | <p>92. ~도곤 / ~라와 / ~에 - ‘~보다’ (비교부사격조사) ex) 누고셔 삼공도곤 낫다 흐더니 만승이 이만흐랴 - 윤선도, ‘만홍’ 널라와 시름 한 나도 자고 니러 우니노라 - 작자미상 ‘청산별곡’</p> |
| <p>81. 가시다 - 변하다. 바뀐다. ex) 님향한 일편 단심이야 <u>가실</u> 줄이 있으랴 - 정몽주, ‘단심가’</p> | <p>93. ~우희 - (시간)~전에 or (공간)~위에 ex) 천세 <u>우희</u> 미리 정후산 한수 북에 - 용비어천가 (125장) ex) 종문 나서 대문 나가 지방 <u>우희</u> 치드라 안자 - 사설시조</p> |
| <p>82. 주로 - 자주 ex) 구름 빗치 조타 흐나 검기를 주로 훔다 - 윤선도, ‘오우가’</p> | <p>94. ~다히(~다이) - ~의, ~쪽(~답게) ex) 무등산 흔 활기 뵈희 동다히로 버더 이셔 - 송순, ‘면양정가’</p> |
| <p>83. 모쳐라 - 마침 ex) <u>모쳐라</u> 밤일미망정 텁혀 낫이런들 놈 우일 번 흐꽤라 - 사설시조</p> | <p>95. ~더 - ~곳(장소) ex) 즐 <u>더</u>를 드디올세라 - 정읍사</p> |
| <p>84. 고тер - 다시 ex) 염낭이 땐을 아래 가는 뜻 <u>고тер</u> 오니 - 정철, ‘사미인곡’</p> | <p>96. ~제 - ~때 ex) 이 몸 삼기실 제 님을 조차 삼기시니 - 정철, ‘사미인곡’</p> |
| <p>85. 져근덧, 건듯 - 잠깐 사이에, 어느 덧, 문득 ex) <u>져근덧</u> 싱각마라 이 시름 낫쟈 흐니 동풍이 <u>건듯</u> 부러 적설을 해텨 내니 - 정철, ‘사미인곡’</p> | <p>97. ~크니와 - 물론이거니와 ex) 각시님 둘이야 <u>크니와</u> 구준 비나 되쇼셔 - 정철, ‘속미인곡’</p> |
| <p>86. 슬^ㅋ장 - 실컷 ex) 무음의 머근 말숨 <u>슬^ㅋ장</u> 숨자 흐니 - 정철, ‘속미인곡’</p> | <p>98. ~하 - ~야(호격조사) / ~곰 - ~좀(강세접미사) ex) 들하 노피곰 도드샤 / 어그야 머리곰 비취오시라 - ‘정읍사’</p> |
| <p>87. 흐마(하마) - 이미, 벌써 ex) 엊그제 저멋더니 <u>흐마</u> 어이 다 늘거리 - 허난설헌, ‘규원가’</p> | <p>99. ~고져 - ~하고자(소망,의도) ex) 출하리 한강의 목멱에 다히고져 - 정철, ‘관동별곡’</p> |
| <p>88. 빗기(비겨) - 비스듬히 ex) 난간에 <u>비겨셔서</u> 님 가신 디 바라보니 - 허난설헌, ‘규원가’</p> | <p>100. ~다호라 - ~같구나 ex) 유월 보로매 아으 별해 부룬 빗 <u>다호라</u> - 고려가요, ‘동동’</p> |
| <p>89. 유세차 - 이해의 차례는 (제문의 첫머리에 관용적으로 쓰이는 말) ex) <u>유세차</u> 모년 모월 모일에, - ‘조침문’</p> | |
| <p>90. ~르세라 - ~할까 두렵다 ex) 잡소와 두어리마느 는 선후면 아니<u>을세라</u> - 고려가요, ‘가시리’</p> | |
| <p>91. ~손다 - ~에게 ex) 뉘손다 타 나관디 양지조차 ㄱ튼손다 - 정철, ‘훈민가’</p> | |